

주가 폭락·악플 전쟁... '음원 사재기 논란' 후폭풍

멜론 사재기 방지 의혹...로엔 주가 급락
카더라 소문 난무...기획사 간 불신 팽배
팬덤들은 인터넷서 경쟁 가수 '흡집내기'

음원 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특정 음원을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음악사이트들이 매출을 위해 음원 사재기를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많은 가운데 국내 최대 음악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의 주가가 급락하고, 가요계에선 '카더라' 소문이 난무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로엔의 주가는 사재기 의혹이 불거진 21일과 22일 각각 9만2200원, 9만1600원으로 마감됐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해 25일 7만5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추석연휴 전까지 나흘간 1만6300원이나 떨어진 것이다.

또 'OO기획사가 음원을 샀다'는, 실제나 증거가 없는 '카더라' 소문이 급격히 퍼지면서 음반기획사들 사이에선 의심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소문들은 '브로커한테 들었다'는 등 근거를 내세우며 신뢰감을 갖게 하지만, 아직까지 사재기의 실질적인 증거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앞서 2013년 일부 대형 기획사들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물증을 잡지 못하기도 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은 팬덤의 '인터넷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획사나 가수 측의 팬들이 악플 등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아이돌 팬덤의 세계에는 반목과 질시의 시선이



가득하다. 이는 엉뚱하게 상대가수의 인격 모독이나 흡집내기까지 번지고 있다.

참다못한 한 기획사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씨스타, 정기고, 보이프렌드, 몬스타엑스 등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는 음원 사재기 루머를 퍼트리고 인신공격성 악성댓글을 생산하는 악플러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채증에 나섰다.

스타쉽 관계자는 29일 "상습적인 악플러들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 허위의 주장이나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글들을 퍼트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명예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소속 아티스트들이 오랜 기간 음원 사재기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로 상처받고 있으며, 팍 흘러 이른 결과에 대한 성취감을 겪는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멜론 관계자 역시 "이미 수년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는 ID에는 록(잠그기)을 걸고, 일정 분량만큼만 무한반복해 들으며 듣기횟수를 높이는 어뷰징은 필터링 기능으로 차단시켜 차트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음반기획사들에 통보됐고, 유통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항에 넣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음원 차트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재기가 의심되는 동일패턴 ID에 대해서도 "사용가능한 연락처 명기"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변경 요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 속에 가요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기획사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음원 사재기가 조속히 근절돼 엉뚱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9년 9월 30일>

디지털 음원사이트의 탄생

최근 디지털 음원 사재기 논란이 뜨겁다. 음악사이트에서 동일 패턴의 유사 ID 등을 이용해 특정곡을 집중적으로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수법으로 순위를 조작한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일부 팬덤의 동일패턴 ID를 통한 세과시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쨌거나 디지털 음원은 이제 음악을 소비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됐다.



1990년대는 한국 대중음악이 꽃을 피운, 또 다른 전성기로 꼽힌다. 현재의 음악시장을 장악한 디지털 음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였다.

1999년 오늘, 당시 최대 규모였던 도레미레코드 가 동아뮤직 등 음반사들과 합작해 인터넷음악유통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IT업체 나눔기술과 손잡은 이들은 1만곡의 디지털 음원을 제공키로 하고 다음날인 10월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로 MP3 파일이 대중의 곁에 정착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MP3(MPEG-1 AudioLayer-3)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동영상 전문가 그룹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 1990년대 중반 개발한 오디오 데이터 압축 저장 파일의 하나다. 컴퓨터 등을 통해 영상과 오디오를 저장하고 처리 혹은 재생하는 데에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줄이고 이를 다시 재생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다.

천리안 등 PC통신이 활성화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MP3는 컴퓨터를 통해 음악을 소비하는 최적의 도구가 됐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곡을 원하는 양만큼 즐겨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급격히 확산됐다.

1997년 PC통신업체들은 곡당 300원가량을 받고 MP3 유통화 서비스에 나섰다. 하지만 누구나 녹음 및 변환프로그램을 통해 CD를 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도 커져갔다. PC통신업체들과 MP3 서비스 업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반사 단체인 한국음반출판사협회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선 저작권(저작권집권 포함)료와 사용료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했다. 이에 따라 PC통신사들은 서비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기도 했다.

1998년 2월 세한정보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휴대형 MP3 플레이어를 선보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이 MP3 플레이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는 사이 조PD(사진)라는 '얼굴없는 가수'도 생겨났다. 조PD는 1998년 가을 '브레이크 프리'를 비롯한 8곡의 MP3 곡을 PC통신 나우누리를 통해 공개해 상당한 화제를 모았다. 직설적이고 현실비판적인 가사에 통신인들은 빠져 들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보아, 올해 남은 일정은 '일본에 올인'

내달 10일 일본 데뷔 15주년 팬미팅
12월 1년 만에 싱글 발표·공연 계획

가수 보아(사진)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일본 활동에 고삐를 조인다.

보아는 2015년 남은 기간 일본에서 팬미팅과 새 음반을 내고 콘서트를 펼치며 '케이팝 개척자'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 번 과시한다.

우선 10월10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 스텔

라볼에서 팬미팅을 벌인다. 내년 일본 데뷔 15주년을 앞두고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발자취'가 테마다. 이날 오후 2회에 걸쳐 진행되는 팬미팅은 각각 '보아스 히스토리 앤드...', '보아스 히스토리 워드...'라는, 서로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12월엔 오랜만에 싱글을 발표하고 공연도 펼친다. 작년 12월 '플라이' 이후 1년 만이다. 또 8월 국내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친 콘서트 '보아 스페셜 라이브:나우뉴스'를 12월11일 도쿄

국제포럼 A홀에서 연다. 앞서 보아는 올해 8번째 정규앨범 '키스 마이 립스'를 발표하고 활동했다.

2000년 15세에 데뷔해 어느덧 15주년과 서른살을 맞은 보아는 한일 양국에서 가수 활동의 '중간점검'을 하게 된 셈이다. 2013년 드라마 '연애를 기대해'를 시작으로 작년 개봉작 '빅매치' '메이크 유어 무브' 등에 출연한 보아는 꾸준히 연기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원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40307-증-55039

강한 男子

음경 확대 귀두 확대 조루 치료 발기부전

- 미세자가지방 이식술
- 주사요법 확대술
- 대체진피 이식술
- 정관·포경수술
-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 각종보형물 삽입술

열린상담 풍부한 경험 합리적인 비용

[수술당일 일반적인 생활가능]

24시간 상담 **대일남성의원**

(代) 02) 457-8778

※일요일·공휴일·아간 예약수술가능
※5·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동합 2층

이제, 당신의 밤이 뜨거워 진다.

나만의 파트너 웡녀

♣ 웡녀 같은 파트너가 필요할 때
♣ 외롭고 고독한 남자가 될 때

새로운 공기주입형 인형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웡녀와 함께 매일 매일 즐거움과 만족을 느껴보세요!

신제품 19
※공기인형신장: 160cm
실제 여성과 유사한 사이즈

강한남자...애정은 뜨겁게 !!!!
좋은가격...좋은재료...웡녀같은 파트너

웡녀를 만나면 신비롭고 황홀한 경험을 하하게 됩니다. 새경지를 개척하는 당신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친절 상담 02) 3390-5179 / 010-2766-5885

강한남자 빅맨

커지고! 단단하고! 오~~래간다!

강한남자로 변신 시켜주는
빅맨(Big Man)

발기력! 조루! 파워!
성기능강화!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자신감 회복!

제품구입문의 010-3185-499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30419-증-42065호

당당한 자신감!

남성 수술 상담

음경 길 이 + 귀두 조루수술

- ★주사요법 확대
- ★대체 진피이식술
- ★포경·무도정관수술
- ★각종 이물질 제거 (바세린 등)
- ★음경만곡증 (성기휨) 교정술
- ★발기부전수술 (굴곡형·평창형 시술로 성생활 가능)

※ 수술 당일 샤워, 일반적인 생활 가능

천호역 뉴맨남성의원

02) 477-7523

위치 : 5호선 천호역 2번출구 한국투자증권 3층